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거룩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평안할 때도 영적으로 깨어 넘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은혜의 찬양 283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 큰 죄에 빠진 날 위해(찬송가 282장)

- 1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 2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 3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 4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 5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 6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말씀 읽기 사무엘하 11:1-13

-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 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 8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 10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 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본문 배경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즉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합니다. 밧세바라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심지어 그 남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는 장수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성으로 데려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4절).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다윗의 죄악은 점점 커져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계락을 꾸밉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시킨 후 밧세바가 임신

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덮어씌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전쟁터로 돌아간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기 또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피폐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관찰

1 다윗은 언제 음란한 마음을 품었나요? (1-2절)

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궁에 남아 있을 때 음란한 마음을 품어 죄를 짓게 됩니다.

해설 모든 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때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도 밧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꺼려지듯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 중에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지만, 이번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1b절).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대항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안일한 마음이 들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 안이 더욱 치열한 전쟁터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2 밧세바의 임신은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낸 다윗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11-13절)

답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으로 야영 중에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만들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11b절).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고백에 왕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한 다윗은 더욱 치졸한 계획을 세웁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를 멈추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

1 요즘은 SNS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음란물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죄를 숨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깨달은 점을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6-4 욕심이 잉태한즉

야고보서 1장 15절

송세라

♩ = 112

Fm Db Ab C7
 욕 심 이 잉 태 한 즉 죄 를 낳 고

5 Fm Bb Dbm6 C7 Fm
 죄 가 장 성 한 즉 사 망 을 낳 느 니 라

9 Fm Eb6 Db C7 Fm C7 Fm
 야 고 보 서 일 장 십 오 절 말 씀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우리 가정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